

경관해설 시나리오 (사패정상)

1. 자기소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시죠? 하지만, 기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눈앞에 탁 트인 경관을 보고 있으면 힘들게 올라오면서 흘린 땀방울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잠시 쉬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저희는 순찰을 하면서 여러 공원관리업무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직접 만나 국립공원에 대한 설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곳 도봉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도봉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국립공원 및 북한산 소개

여러분들이 오신 곳은 북한산국립공원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우이령을 중심으로 남쪽의 북한산과 북쪽의 도봉산 전역을 함께 아우르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소중한 국립공원이 20개가 있는데요, 북한산국립공원은 1983년 우리나라에서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산국립공원은 서울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도심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작년 한해 약**970만 명(도봉산+북한산)**이 방문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계신 곳에서 주위를 한번 뱅~ 둘러보세요! 어떨죠? 주위엔 온통 회색 건물들과 도로뿐이죠? 이처럼 북한산국립공원은 도심으로 둘러싸여 생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도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의 6개 구에, 북쪽은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에 넓게 걸쳐있는 곳입니다. 반면 이런 고립된 환경조건에도 도심지역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녹색허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아주 고마운 산이기도 합니다. 서울 도심 한 복판에 이렇게 멋진 경관과 맑은 공기를 맛볼 수 있는 곳도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고지대 경관해설

지금 계신 이곳은 사패산입니다. 사패산은 북한산국립공원의 북쪽 끝에 있는 산으로, 동쪽으로 수락산, 서남쪽으로 도봉산을 끼고 있습니다. 높이가 552m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사이에 위치해 있어 정상에 서면 송추지역과 의정부 시내가 한눈에 보

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도봉산과 수락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멀리 북한산의 경관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사패산(賜牌山)의 이름은 어떻게 생겨난걸까요?

한자를 풀이해보면 사(賜)는 하사할 사, 패(牌)는 공을 새긴패 패입니다.

사패(賜牌)라는 것은 왕족이나 공신에게 전지(田地)나 노비를 하사할 때 팔려 주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사패를 팔려 하사한 토지는 사패전(賜牌田)이라하고 만약 노비를 주었다면 사패노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선조는 14남 11여중 6번째딸 정취옹주를 꿈쩍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옹주는 후궁에게서 난 딸을 말합니다. 물론 왕비가 난 딸은 공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딸을 영의정 유영경의 손자 유정량이라는 선비에게 시집보내면서 이 산을 통째로 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패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설이 있습니다 또 산 아래 마패를 제작하는 곳이 있어 그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패산은 도봉산과 마찬가지로 암봉이지만 도봉산의 날카로움과는 달리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정상은 넓게 펼쳐진 바위가 거대한 제단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봉산의 암봉들은 중생대 쥐라기에 형성되었고, 경관이 수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능선을 따라 멀리 보이는 도봉산의 대표적인 암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인봉, 만장봉, 자운봉 세 봉우리는 북한산의 상징으로 선인봉은 신선이 도를 닦는 바위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만장봉은 높디높은 산봉우리란 뜻으로 도봉산 북동쪽에 닭벼슬처럼 날카로운 형상을 한 기암입니다. 자운봉은 높은 산봉우리에 붉은 빛의 아름다운 구름이 걸린다는 의미로 자운(慈雲)은 불가에서 상서로운 기운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능선은 도봉능선, 보문능선이고, 그 옆의 봉우리가 오봉입니다. 오봉에서도 재미있는 경관해설을 진행하고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오봉에 오르셔서 오봉경관해설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멀리 뒤흘에 보이는 산은 삼각산이라 불리우는 북한산의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입니다.

주변의 대표사찰로는 회룡사, 원각사가 있는데, 회룡사는 호원동 전좌마을에서 회룡골 계곡에 자리 잡고 있고, 신라 신문왕 원년(681년)에 의상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의정부에서는 망월사 다음으로 오래된 절입니다. 회룡사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6호로 지정된 의상조사의 사리를 봉안한 5층 석탑과 경기도문화재 자료 제117호, 제118호로 지정된 석조와 신중도가 있고, 회룡사 경내의 화단에는 신장상(神將像)을 조각한 2기의 노주(露柱)가 있습니다.

원각사는 사패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사찰로 소박한 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찰 앞마당에는 높이 약 3m정도 되는 한국 최초로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좌불상이 있으며, 이곳은 송추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로 송추지구에 있는 사찰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어지는 등산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 사패산에서 첫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안골계곡을 따라 안골공원지킴터로

내려갈 수 있는 코스(약 2.1km)가 있습니다.

사패산을 내려가서 능선이 시작되는 지점에 분기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송추지역 원각사를 지나 사패산공원지킴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약 2.2km)

사패능선을 따라 0.3km정도 가시면 범골삼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범골능선을 따라 내려가 시면 능선상의 여러 갈림길이 나오게 되는데, 회룡탐방지원센터나 석천사입구, 성불사를 거쳐 안골공원지킴터, 호암사를 거쳐 범골공원지킴터, 시청뒤공원지킴터로 각각 내려갈 수 있으니 이정표 등으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 코스를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패능선을 따라 0.6km정도 가시면 회룡사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송추, 회룡, 도봉으로 갈라지는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송추계곡을 따라 하산하시면 송추분소를 거쳐 송추지역으로 내려가실 수 있고(약3.7km), 또는 회룡계곡으로 내려가시는 코스는 철제계단이 설치된 구간으로 회룡사를 거쳐 회룡탐방지원센터로 가실 수 있습니다.(약2.5km)

그리고 사패능선을 따라 직진하여 산행을 계속하시면 포대능선과 이어져 도봉산 종주가 가능합니다.

사패능선은 포대능선과 이어져 있는 능선으로 회룡사거리에서 사패산까지를 말하는데 경사가 완만하여 포대능선보다 산행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그러나 안이한 생각은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가시고자 하는 등산로를 이정표나 등산안내로 등으로 꼭 확인하시어 안전한 산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4. 마무리

이제 경관해설을 마무리하고 겨울산행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행 전 그날 산의 기상상태를 일기예보 등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산행시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체온유지입니다. 산행 중 땀을 많이 흘려 옷이 젖게 되면 저체온증이나 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몸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조절해야 합니다. 산행거리에 비해 시간은 넉넉히 잡는 것이 유리하며 방한을 위한 물품(보온병, 장갑, 보온의류 등)과 열량이 높고 소화흡수가 잘되는 식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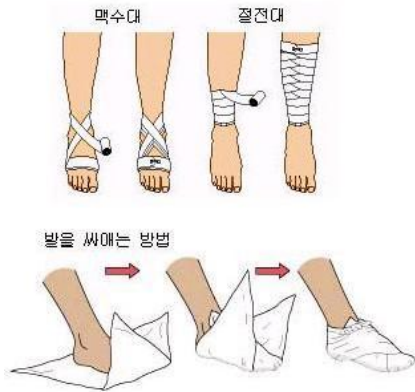
휴식을 취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휴식이 없이 급하게 산행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쉬게 되면 근육이 굳어져 다시 걸기도 힘이 듭니다. 컨디션에 맞게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산 시 휴식 없이 급하게 내려오는 분들이 있는데, 하산시에는 체중과 배낭의 하중이 무릎이나 발목에 가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산시의 휴식도 오를 때만큼 중요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목적지를 정했다면 대강의 시간과 코스의 난이도,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여 산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행과 동반산행일 때는 동료들의 체력과 산행경험도 감안해야 합니다. 일행 중 초보자가 있다면 힘든 코스보다는 무난한 코스를 선택해야 모두가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행 중 발을 헛디디거나 무리하게 보행을 해 발을 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산을 하려면 아직도 한참 걸어야 하는데 발을 빼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동행인들도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응급처치는 손상된 부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발을 빼었을 때는 심한 통증과 함께 붓고, 변색되며 움직일 수 없게 되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의 움직임을 막고 손상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붓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부었다면 신발을 벗기고 가능한 빨리 손상부위에 찬물 찜질을 해야 하는데, 찬물찜질은 붓는 것과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최소한 48시간은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붓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목적지까지 어쩔 수 없이 가야한다면 압박 붕대로 압박하고 손상부위를 삼각건이나 슬링테이프 등으로 보강한 후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오늘 어떠셨나요?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듯이 여기 국립공원에는 아름다운 경관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나무와, 곤충, 수서곤충, 야생화, 그 외에도 여러 사찰이 분포하여 있고 또 이 사찰에는 주요 문화재들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름다운 숲과 문화재들을 우리 후손에게 잠시 빌려서 보고 느낀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에게 그대로, 아니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지켜주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하며,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항상 산불을 조심하고, 절대 담배는 피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은 데려오지 않으며,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임산물 채취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시는 탐방객들이 있는데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유익한것이 아닙니다. 야생동물들의 야생성을 훼손하고 야생동물들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폭설과 재난으로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문기관의 관리계획 하에 제공하게 되므로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믿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자연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프로그램 및 다양한 참여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구요, 내려가시는 길도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연환경안내원 ○○○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